

# 도전과 성취의 강한 충남을 위하여



이완구 |  
충청남도지사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새로운 도약을 연원해 오신 도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저에게 충청남도지사의 중책을 맡겨주신 도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  
사를 드리고, 온몸을 던져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을 입숙히 약속드  
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충청남도는 예로부터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웠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분연히 일어나 대의를 지켰던 충절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는 발전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나 있었습니다. 본격적  
인 민선지방자치 실시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돈과 사람과 권한은 중앙  
정부에 있는 반면, 지역경제는 취약하고 지역간 발전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개발을 요구하는 세계적 흐름과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더 치열한 경쟁을 요구  
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지방정부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합니다. 창의를 바탕으로 끊임  
없는 도전과 강한 실천력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  
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충남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충남은 행정도시 건설, 도청이전, 백제·나포문화권의 본격 개발 등 개도  
110년 만에 대 변혁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시기에 저는 도민 여러분께  
참여와 단결을 호소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자치발전의 기본이며,  
단결은 강한 충남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200만  
도민이 함께 버리를 맞대면 거뜬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인 충남발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합니다.

저 이완구 더욱 낮은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저의 공약은 물론이고, 타 후보의 공약도 적극 수용해 나갈 것입니다.

민선자치 이래 충남도정은 '1등 도장'을 구현해 왔고, 외형적인 경제성장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끌고루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와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충남을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

저는 아직도 선거기간 중에 만났던 모내기 하시던 한 농부의 주름살 깊게 패인 얼굴과 굳은살이 박힌 아주머니의 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이 분들이 주신 무인의 눈빛은 저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앞으로 충남도정이 추구해야 할 5대 목표를 도민 여러분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균형있는 지역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이 제 기능을 다할 때 건강하듯이, 16개 시군이 골고루 발전되어야 충남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저는 행정도시 건설과 도청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상징동력으로 삼아 그 성과와 혜택이 도내 전 지역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도의회가 개원되면 협의하여 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충남의 서북부권을 IT·반도체·자동차·철강·석유정밀화학 등 전략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서해안권은 황충국 진축의 거점으로 본격 개발하겠습니다. 금강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은 충남의 새로운 발전축이 될

수 있도록 산업·관광·물류 등 광역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위대한 금강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둘째,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충남이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들을 비롯한 소외받는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어촌 어르신들이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을 대폭 지원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나가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농어촌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FTA 등 농축산업의 개방화는 우리 농어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을 만드는 것이 충남도정이 지향해야 할 핵심과제입니다. 농어촌의 교육·의료기반 확충, 벤처농업육성과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체험관광을 통한 소득증대 등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정보화를 통하여 농어민의 소득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지역의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역동적인 산업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외자유치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10년에는 1인당 GRDP 3만불시대를 열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곳곳에 있는 백제·내포문화 등 관광자원을 산업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은 미래의 생명자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책무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은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이며,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산·강·연안·바다를 연결하는 지역통합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역별 생태지도를 만들어 총체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재난·재해에도 200만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이끌어 갈 충남도정의 5대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도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도전의 강한 실천행정'이 절실합니다.  
민선 4기 충남도정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행정'은 안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지침을 따라가는 '관리 위주의 행정'은 더 더욱 안됩니다. 우리의 것을 스스로 찾고, 스스로 만들어 가는 활기찬 도정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조직도 이제 성과를 올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정은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일벌백계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일과 능력을 중심으로 공정한 인사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함께 노력할 때 200만 도민이 우리를 신뢰하여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에 적극 동참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충청남도는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가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해 온 충청인의 저력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저력과 지혜로 충남발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200만 도민이 힘을 합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충남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창조합시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0만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맘과 열정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